광주 'AI데이터센터' 본격 패키지 서비스

단독 스토리지·가속기·빅데이터 AI 플랫폼 기반 체험 서비스 제공
20일까지 이용자 모집…컴퓨팅 자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사업의 핵심시설인 '국가 AI데이터센터'가 패키지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한다.

11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AI 데이터센터 수요 맞춤형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기존의 사업단이 제공해온 광주 AI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 서비스와 함께 가속기, 단독 스토리지, 빅데이터 AI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AI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환경이 구축돼 광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가공·유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스토리지를 비롯한 학습 완료된 AI 모델 오픈베타 수준의 서비스, 단기간 서비스 체험을 통한 향후 학습모델 개발 및 사업화 등을 희망하는 기업·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 등이 모집 대상이다. 기존 국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 등도 신청 가능하다.

광주시와 사업단은 광주 소재 인공지능 기업, 본사·지사·연구소를 광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 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 참여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AI데이터센터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AI 데이터센터 수요 맞춤형 서비스'는 기존 AI학습 중심 지원에서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제품 개발부터 AI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수집·가공·분석에 필요한 스토리지 단독 상품, 학습 모델 개발 완료에 따른 상용화 수준의 오픈베타 서비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오픈베타는 AI 모델의 정식 서비스 전에 서비스 결함·불편사항 등을 신청자 대부분이 직접 체험·점검하는 상용화 수준의 시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현재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4119억원을 투입하는 광주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 서비스와 더불어 상용화 수준의 오픈베타 서비스까지 제공함에 따라 AI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1 선거공감' 기고 〈2〉

여론조사, 국민투표, 대의제

최기영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대선이 끝났어도, 정국은 시끄럽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킨다고 하고, 누군가는 사회적 갈등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하지만, 이러저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소리를 듣다 보면,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대문호 빅톨 위고는 자신의 희곡을 '표절'했다고 생각하여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의 공연에 반대했다는데, 몰래 가 본 프랑스 초연에서 네 사람의 싸움을 4중창으로 표현한 것을 듣고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싸우면 아무 것도 알아들을 수 없을 텐데, 오로지 음악만이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저토록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다툼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표현해 줄 멋진 작곡가를, 그 신묘한 방법을 기대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선거가 그 '지휘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는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선거를 포함하여 정치적 쟁점에 대해 여러 목소리,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어떤가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한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며, 치우치지 않는 문항을 구성하여, 최대한 조사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의사의 왜곡 방지'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를 둘러싸고는 너무나 자주, 너무 많은 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거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마다 하는 기분이라는 국민적 피로도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중요 의제를 여론조사 자체가 선점한다는 지적은, 특히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을 보더라도 인사청문에 대한 여론조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주요 뉴스로 보도되면서, 정작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부동산 이슈,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이슈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더군요. 편향된 언론사가 특정 이슈를 국민에게 세뇌한다는 '프레임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소 관심을 가졌던 문제보다 질문 당한 문제에 알게 모르게 빠져드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법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국민투표' 제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여론의 반향을 청취하겠다는 것을 넘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투표 시행 여부가 결정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민의 역할은 그 뜻을 펼칠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고, 구성된 통치기구는 국민의 이익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대의제' 원리를 바탕으로, 불과 20여 년 전에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와 국민투표, 대의제,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뒤집기도 하는 '물'인가요, 그 물을 일으키는 '바람'인가요?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생각이 출렁이는 나날입니다.

2022 양궁월드컵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11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양궁월드컵, 시민 힘으로 성공 이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광주 2022양궁월드컵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

광주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 양궁 월드컵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사전 교육을 했다.

자원봉사자는 학생, 가정주부, 어르신, 회사원 등 각계 각층 112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회기간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 숙박호텔 등에서 외국어 통역, 경기진행, 환경관리 등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다.

그동안 광주시민이 주축이 된 자원봉사단은 국제스포츠 대회와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에 큰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역시 광주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2022 양궁월드컵대회 자원봉사자는 광주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광주의 얼굴"이라며 "광주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광주 2022 양궁월드컵대회에는 38개국 381명이 참가하며 예선과 본선 경기는 17일부터 20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결승경기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친환경 실천농가 인증비 전남도, 136억 지원키로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확대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36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업인·단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전국(7만5117ha)의 54%인 4만344ha다. 인증별로 유기농 2만5816ha, 무농약 1만4528ha다. 품목별로 벼가 가장 많은 2만712ha다.

인증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면적당 한도에서 80%를 지원한다. 면적당 한도는 2ha 이하인 경우 57만원이며, 2ha 초과 시 ha당 5만원씩 추가한다. 개인은 최대 2건, 단체는 건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정·힐링·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

다음달 14일 '방문의 해' 선포

전남도가 오는 6월 14일 목포 유달유원지에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방문의 해 주제는 '청정·힐링·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2022~2023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연말께 선포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상회복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날 착수보고회를 열어 선포식 일정을 확정했다. 선포식은 1부와 2부로 나눠 문화가 있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1부는 전남도립국악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관광 홍보영상 상영, 관광개발 업체와의 투자협약(MOU), 홍보단 출정식, 선포 퍼포먼스를, 2부는 공중파 방송과 연계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